

광주·전남 혈액 보유량 대부분 ‘경계’…수급 ‘빨간불’

8일 기준 2.5일분으로 ‘주의’ 단계
O형 1.8일·A형 1.6일·AB형 1.7일
B형만 4.9일…한달 새 거의 반토막
“현혈 릴레이 등 지역민 참여 절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의 혈액형별 혈액 보유량이 대부분 ‘경계’ 단계에 접어드는 등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8일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보유 혈액량은 2.5일분으로, ‘주의’ 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4주 전인 지난달 4일 4.4일분에 비해 면절반에 그친다는 수준이다.

혈액형별 보유량은 ▲B형 4.9일분 ▲O형 1.8일분 ▲AB형 1.7일분 ▲A형 1.6일분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동계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70일간 사랑의 현혈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진은 지난 6일 강진군이 단체 현혈 행사를 진행한 모습.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제공>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보유량을 기준으로 5일 미만의 경우 관심 단계로 분류하며 이 때부터 수급 징후 감시 활동을 펼친다.

3일 미만은 ‘주의’, 2일 미만은 ‘경계’, 1일 미만은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해당 기준에 비춰 볼 때 상대적으로 낙관한 B

형을 제외한 나머지 혈액형의 혈액은 이미 대비 계획을 짐작해야 하는 경계 상태다.

이 같은 혈액 부족 상황은 매년 동절기에 반복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학생들의 방학이 꼽힌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광주·전남 지역 전체 현혈자 가운데 42%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으나, 방학 기간인 1~2월에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혈액원은 지난해부터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70일간 사랑의 현혈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은 광주·전남 전역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70일간 ‘현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개된다.

혈액원은 릴레이 현혈 활성화를 위해 경품 추첨과 연계한 ‘SNS 현혈 철린지’를 추진하고 단체 현혈 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혈 앱 ‘레드 카넥트’를 활용한 연

중 프로모션과 현혈 교육 확대를 이어가며, 지자체와 협력해 현혈자 유공 표창과 지원 예산 확충 등 예우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난 5일에는 신안해양과학고 등 6개 단체가, 6일에는 강진군청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단체 현혈에 동참했다.

이달 중 군부대 38곳과 지자체 15곳에서 추가 단체 현혈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업체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기아 오토랜드 광주(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이 하순께 현혈 참여를 약속했다.

박진성 광주전남혈액원장은 “학생 방학 기간인 1월부터는 광주·전남 지역민과 기업의 참여가 더욱 절실히다”며 “혈액은 오직 현혈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현혈의 집이나 현혈 버스를 통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속적인 인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주들 항소 잇따라 기각

조명설비 미비 60대 추락사

정화조서 청소 60대 질식사

각 대표 정역 1년·집유 2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안전 장비 등을 미지급해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들의 항소가 잇따라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업무 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정역 1년·집유 2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도농업회사법인 대표인 A씨는 2023년 4월 22일 오전 8시40분께 전남 소재 한 도정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냈던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근로자가 추락한 곳은 조명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등 안전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안전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따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한 것으로 봤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B(60대)씨에 대해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인 B씨는 2023년 7월 25일 오전 8시54분께 광주 한 아파트 정화조에서 60대 근로자가 질식한 사고와 관련, 사업주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이란 결과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질식한 근로자는 공기를 공급해 주는 ‘송기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채 4m 깊이의 밀폐된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은 지약한 달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장비 미지급뿐만 아니라 밀폐 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작업도 하지 않은 체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연재영 기자

금타 일부 직원들 임금 소송 패소

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 수당과 상여금이 있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직원 A씨 등 24명이 사측에 대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4조 3교대 원고들은 법정 근로 시간인 주 40시간을 2시간씩 초과해 연장 근로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사측은 각각 40만~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21년 12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상여금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연장 근로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이는 노조와 맺은 단체 협약을 통해 유급 휴가로 보상받았다고 판단했다.

상여금에 대해선 2022년 1월부터 지금 체계가 노사 합의를 통해 바뀌면서 소멸한 것으로 봤다.

/연재영 기자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하라”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탈핵회망전국순례 기자회견이 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열려 탈핵시민행동 시민단체가 노후 핵발전 소 수명 연장 중단 및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수능 만점자 강연회 등 교육 공공성 훼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장

市교육청 “학생회장 등 학교생활 전달”

광주시교육청이 ‘수능 만점자’ 최장우(광주 서석고) 학생의 강연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교육시민단체가 교육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중단을 요구했다.

8일 시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오는 28일 광주교육정보연구

원 대강당에서 최장우 학생 초청 강연회가 열린다.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은 수능 만점자 배출이 교육청의 성과인 양 각종 보도자료와 대형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수능 만점자 마케팅 경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위기는 사교육보다 못해 서가 아니라 사교육을 닮아갈 때 생긴다”며 “공교육의 책무는 사교육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닌 덧붙였다.

/박선옥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 6만배송 (기타 낙후지역 배송비 추가 요금 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모두 가능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